

하나님에 따른 목양의 유기적인 실행

메시지 3

유기적인 목양의 필수조건 (3)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부담을 취함

성경: 고후 5:14, 11:28-29, 출 28:4, 15-21, 29-30, 41, 고전 9:16-17

- I. **충분하고 철저한 기도를 통해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부담을 유기적으로 취함**—고후 5:14, 11:28-29, 빌 1:7-8, 행 18:5.
- A. 우리 자신을 다시 헌신하고 주님과와의 충분한 접촉을 가진 후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주님의 부담을 취할 수 있다—마 9:36—10:1, 눅 6:12-13, 행 18:5.
 - B.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압력을 주실 것이다. 그것에 의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만 한다는 필요를 느끼며 깨닫게 될 것이다. 그 후에 우리는 그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고후 5:14 각주 2 상반부, 11:28, 빌 1:7-8.
- II. **이것은 대제사장이 봉사할 때 에봇과 흉패를 입은 것으로 예표될 수 있다**—출 28:2,4, 15-21, 29-30, 41.
- A. 제사장 직분의 중심적이며 최종적인 증점은 바로 흉패이다—출 28:4.
 - 1. 흉패는 제사장의 봉사를 위한 제복이다—출 28:29.
 - 2. 대제사장은 열두 보석을 가지고 있는 흉패를 입었으며 각 보석에는 열 두 지파 중 하나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출 28:16,17상, 21, 뱀전 2:5.
 - B. 판결 흉패, 우림과 둠뭉을 입음으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의 상황을 읽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과 인도하심에서 나온 중보기도의 분명한 부담을 가져 온다—출 28:29,30, 히 1:2, 계 3:14, 참조 출 28:30 각주 1 번, 2번, 눅 1:6 각주 4.
 - C. 에봇에 연결된 흉패는 중보기도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무한한 돌보심에 견고하게 부착되었다는 것을 상징한다—출 28:15-16.
 - 1. 에봇은 두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둘은 어깨 위에 달려 있었다—출 28:7-8, 12, 27.
 - 2.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고정하는 능력과 매는 힘과 묶는 역량을 가지고 계신다—출 28:22-28, 39:15-18.
 - 3. 우리가 돌보는 새로운 이들은 중보기도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와 견고히 연결될 수 있다—고후 1:21, 살전 2:8, 17.
- III. **이것은 또한 제사장들의 헌신으로 예표될 수 있다**—출 28:40-41, 각주 1, 29:1-14.
- A. 히브리어에서 ‘헌신’은 ‘손을 채우다’라는 의미이다.
 - B. 이렇게 손을 채우는 것은 표시가 되어 그 사람을 세속적인 모든 것에서 분별한다—출 28:41 각주1.
- IV. **주님이 우리에게 부담을 더 주실수록 우리는 영적인 은사를 더 받게 될 것이다**—마25:14-17, 20-23.
- A. 마태복음 25장 15절의 달란트는 14절의 소유물이다.
 - 1. 주님이 그분의 소유를 우리에게 더 주실수록 우리는 더 많은 달란트를 받게 될 것이다.
 - 2. 달란트는 우리의 타고난 출생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부담과 관련된 것이다.
 - 3. 달란트를 더 받기 원한다면 반드시 성도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 B.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주님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다.
- V. **사도 바울의 부담은 다른 이들을 위해 허비하고 극도로 허비되는 것이었다**—고후 12:15.

VI.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급우, 동료—을 재검토하고 그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기도하고 먼저 누구를 돌보아야 하는지 주님의 인도를 구하며, 우리가 아는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을 방문하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에 우리 자신을 열어드림—고전 9:16-23, 롬 1:14-16, 히 13:17.

참고 서적: 제사장 직분 메시지 11,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23, 119, 120, 126, 133, 교회의 건축을 위해 열매를 맺고 목양하는 정상적인 길 1, 2, 3장, 활력 그룹의 훈련과 실행 메시지 3, 위치만니 전집 3집 47권 3장, 위치만니 전집 1집 1, 10권, 31장,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65, 활력 그룹의 긴급한 필요에 관한 교통 메시지 21.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한 글: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부담을 취함

우리 자신을 다시 헌신하고 주님의 철저한 다름을 받은 후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부담을 취할 수 있다. 부담을 취하기 위해 특별하게 기도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취한 부담이 무엇이든 그것은 주님의 부담일 것이다. 우리는 사무적인 일들만을 먼저 관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아마 집회에서 안내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안내하는 일 자체가 우리의 부담은 아니다. 그보다 우리의 부담은 안내함으로써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부담을 취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온다. 우리가 주님께 의해 완전히 다름을 받은 후 안내를 한다면 우리가 어디서 안내하든지 생명을 공급할 것이다. 우리에게서 다른 사람들의 영 안으로 생명이 흘러 들어갈 것이다. 성령은 항상 이러한 봉사를 존중하신다. (교회의 건축을 위해 열매를 맺고 목양하는 정상적인 길 22-23쪽)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압력을 주실 것이다.

그것에 의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만 한다는 필요를 느끼며 깨닫게 될 것이다.

그 후에 우리는 그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형제가, "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합니까?"라고 물었다. 나는, "압력이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그가, "왜 압력이 꼭 필요합니까?"라고 묻자, 나는, "압력이 있어야만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나는 늘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는가를 묻는다. 그들은 종종, "한 가지 일에 대해 세 번이나 다섯 번 기도하고 나서 잊어버립니다."라고 대답한다. 왜 잊어버리는가? 그것은 당신이 결코 압력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묘하게도 대부분의 사람이 모두 이와 같다. 만일 당신이 잊어버렸다면, 당신은 하나님 또한 잊어버리시는 것을 나무랄 수 없다. 당신에게 할 마음이 있지만 무심코 몇 마디를 말한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당신에게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 많은 사람의 기도는 마치 문장을 만드는 것과 같다. 당신은 그러한 사람에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 주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나서 먼저 기도의 첫번째 원칙을 여기므로 그가 응답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기도의 첫번째 원칙은 무엇인가? 믿음이나 약속이 아니라 필요이다. 필요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고자 하시는 데 있어서, 첫번째 일은 그분이 당신에게 필요를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첫번째 일은 먼저 당신에게 압력을 주어서 당신으로 필요를 느끼게 하는 것이며, 그런 후에야 당신은 하나님을 필요로 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바울 또한 이와 같았다. 그는, "내가 내 형제와 내 골육지친을 위하여서 자신이 저주받고 그리스도와 나뉘지라도 나는 원하노라"(롬 9:3)고 말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그가 구원받지 않는 편이 낫다고 했다. 이러한 말들은 결코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며, 또한 감정의 작용도 아니다. 왜냐하면 필요에 대한 압박이 그로 하여금 이러한 느낌을 갖게 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의 기도하는 말을 배우지만, 결코 기도의 효력이 없으며 쓸모없게 되어 버린다. 왜냐하면 압력이 없기 때문이다. 일찌기 어느 누가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듣지 않으시면, 나는 일어서지 않겠다고 기도했는가? 당신 내면에 진실로 이러한 느낌과 말이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들으실 것이다. 아마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이 기도의 말을 따라서 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압력을 느끼는 것이다. (워치만니 전집 1집, 20권 244쪽)

판결 흥패, 우림과 둠뫼를 입음으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의 상황을 읽을 수 있고

그것은 중보기도의 분명한 부담을 위한 하나님의 판단과 인도하심을 가져 온다

출애굽기 28장 30절은, "너는 우림과 둠뫼를 판결 흥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돌지니라"고 말한다. 데이빗 베런(David Baron)의 저서 '고대의 성경과 현대의 유대인(The Ancient Scriptures and the Modern Jew)'에는 우림과 둠뫼에 관한 글을 담고 있는 부록이 있다. 이 글에 의하면 흥패 위에 있는 열 두 이름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스물두 자 가운데 열여덟 자를 포함하였다. 나머지 네 자는 둠뫼이라 부르는 부분품에 부착되었다. 히브리어 단어 둠뫼는 '완전케 하는 자들', 또는 '은전케 하는 자들'을 뜻한다. 그러므로 둠뫼이라 부르는 추가적인 부분품을 지닌 흥패 위에서 모두 스물 두 자의 히브리어 알파벳을 볼 수 있다. 타자기 키 위에 있는 스물여섯 자의 영어 알파벳이 단어나 구절이나 문장이나 단락을 형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듯이 흥패와 둠뫼 위에 있는 스물 두 자의 히브리어 알파벳은 단어들이나 문장들을 판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다.(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26, 180-181쪽)

흥패는 하나의 실체로 함께 건축된 모든 믿는 이들이 함께하는 교회를 상징한다.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알려진 하나의 실체가 되기 위해 건축된 모든 변화된 믿는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글자들이다. 이것은 오늘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에게 말씀하심을 뜻한다. 우리는 이것을 바울의 여러 서신이 기록된 방식에서 볼 수 있다. 어떤 교회에 편지할 때 바울은 그 지방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였다. 다른 말로, 그는 그 지방에 있는 성도들의 상태와 상황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성도들의 상태와 상황을 서신을 작성하기 위한 영적인 알파벳의 문자로 이용하였다. 바울은 그의 편지의 어느 것도 공허한 사상을 지닌 추상적인 방법으로 쓰지 않았다. 그렇다. 그의 서신들은 항상 어떤 지방에 있는 성도들의 상태와 상황에 근거하였다. 그리하여 그러한 성도들이 서신의 영적인 식자에 있어서 바울이 사용한 글자가 되었다.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26, 183쪽)

에봇에 연결된 흥패는 중보기도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무한한 돌보심에 견고하게 부착되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흥패는 제사장의 의복의 첫째 항목일 뿐 아니라 이 모든 의복의 중심 항목이다. 먼저 대제사장은 그의 몸 전체를 덮는 긴 속옷을 입었다. 그리고 나서 속옷 위에 그는 겹옷을 입었다. 이 겹옷은 아마 무릎까지 이르는 상의의 길이였을 것이다. 그 겹옷 위에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속옷과 겹옷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에봇은 독특하다... 에봇은 겹옷 위에 있었으며

겉옷은 속옷 위에 있었다. 앞의 메시지들에서 우리는 에봇에 두 견대가 있었고 그 위에 이스라엘 열 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호마노들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은 각각에 열 두 지파들의 이름이 하나씩 새겨진 열 두 보석으로 이루어진 흉패를 입었다. 우리는 판결 흉패가 하나님의 인도를 알게 하는 하늘에 속하고 신성하며 영적인 타자기의 기능을 하였음을 보았다. 이 하늘에 속한 타자기가 제사장의 의복들의 가장 중심이다.

우리는 흉패가 교회를 예표하고 에봇이 그리스도를 예표함을 보았다. 그러므로 에봇 위의 흉패는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가슴 위에 품은 바 됨을 상징한다. 더 나아가, 흉패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로 더불어 제시하심을 가리킨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도를 알게 하시는 신성한 알파벳을 지니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이다. 다시 한 번 우리는, 구약의 예표들이 신약에서 볼 수 없는 세부 항목들을 계시함을 본다. 나는 신약에 계시된 것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표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리스도, 교회를 알게 되었음을 증언할 수 있다.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23, 159-160쪽)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고정하는 능력과 매는 힘과 묶는 역량을 가지고 계신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에봇을 입을 권리가 있었다. 이것은... 오직 그분만이 붙들어 매는 능력과 죄는 힘을 가지고 계심을 뜻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붙잡으시고 묶으시며 우리를 그분 자신에게 연결하신다고 말할 수 있다. 붙잡는 능력은 그분의 신성한 영광과 인간적인 아름다움이다.

우리는 에봇이 붙들어 매는 데 사용된 한 별의 옷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세 개의 판(plate) —en 개의 견대와 흉패—이 에봇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판들이 에봇에 고정되어 있었으므로 그것들은 또한 대제사장에게 고정되고 묶이고 죄어져 있었다. 그에게 고정되어 있었으므로 그것들은 그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없었다. 이것이 에봇의 의미이다.

대제사장으로서는 그리스도께서는 고정하는 능력과 매는 힘과 묶는 역량을 가지고 계신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품으시며 지키시는 방법에 관해 말한다. 어렸을 때 나는, 목자가 그의 두 팔에 어린 양을 품듯이 주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렇게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주님을 마음에 그렸다. 그러나 우리가 에봇의 묘사를 깊이 살펴본다면, 주님이 단지 우리를 붙드시는 것만이 아님을 볼 것이다. 판들이 에봇에 연결되었듯이 그분은 우리를 묶으시고 그분 자신에게 우리를 고정시키신다. 붙드는 것은 고정시키는 것만큼 의미심장하지 않으며 품는 것은 죄거나 묶는 것만큼 의미심장하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고정된다. 우리는 그분에게 묶인다. 그렇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짊어지시며 우리를 안으신다. 그러나 그분은 어린 양을 안는 목자처럼 우리를 그분의 팔에 안으시지 않는다. 대신, 그분은 견대들과 흉패가 안전하게 고정되었던 에봇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처럼 우리를 안으신다.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19, 123-124쪽)

이렇게 손을 채우는 것은 표시가 되어서 그 사람을 세속적인 모든 것에서 분별시킨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 위임하는 것은 그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며, 그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를 분별하는 것이다. 어떤 이를 제사장으로서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의 손이 채워져야 한다. 그의 손을 채우는 것은 세속적인 모든 것에서 그를 분별하는 표시가 된다. 만일 내가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내 손에 채우고 있다면, 이것은 내가 분별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빈 손에 그리스도를 채우는 사람은 다 분별된 사람이고 거룩케 된 사람이다.

... 여기서 '위임하다'라는 의미는 그리스도로 우리의 빈 곳을 채운다는 뜻이다. 우리에게 빈 손이 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빈 손에 그리스도를 채워야 한다. 우리의 손을 채우는 것은 의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며, 우리를 분별하는 것이며,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서 분리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손이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이웃이나 직장에서 우리가 분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세속적이고 믿지 않는 이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제사장들이 아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과 분별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손에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이다. 우리는 학교나 직장이나 집이나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손에 그리스도를 가득 채워야 한다.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은 일반적인 이들에게서 우리를 분별하는 표시가 될 것이다. 다른 이들은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빈 손으로 있지만, 우리의 손은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리스도로 손을 가득 채우는 것이 제사장이 되도록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33, 10-11쪽)

주님이 우리에게 부담을 더 주실수록 우리는 영적인 은사를 더 받게 될 것이다

14절은 그 사람이 자기 소유를 노예들에게 맡겼다고 말하지만, 15절은 노예들에게 달란트를 주었다고 말한다. 이것은 15절에 있는 달란트가 14절에 있는 소유임을 가리킨다. 달리 말해서 주님은 그분의 소유를 우리를 위한 달란트로 쓰신다. 예를 들어서, 복음은 주님의 소유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은 우리의 달란트가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진리는 주님의 소유이다. 그러나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은 하나의 달란트가 된다. 동일한 원칙으로 모든 믿는 이들은 주님의 소유이다. 믿는 이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들은 우리의 달란트들이 된다. 모든 믿는 이들이 없다면, 나의 달란트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교회는 주님의 소유이다.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은 우리의 달란트가 된다. 주께서 그분의 소유를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실수록, 더욱더 우리는 달란트를 많이 갖게 된다. 마찬가지로 주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더 많이 주실수록, 우리는 더 많은 달란트를 갖게 된다.

이 비유에서 달란트가 은사들이라는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은사들의 근원이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오늘날 주님의 소유는 주로 복음과 진리와 믿는 이들과 교회이다... 나의 달란트는 천연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과 진리와 믿는 이들과 교회이다... 나에게서 복음과 진리뿐 아니라 수십만의 믿는 이들과 수백개의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강한 은사를 갖고 있다. 이 사역이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달란트는 당신이 태어나면서 지닌 그 무엇이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부담과 관련된다. 만일 당신이 하나의 부담을 안는다면, 당신은 하나의 달란트를 받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한 지방 교회를 위한 하나의 부담을 갖는다면, 당신은 하나의 달란트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다섯 교회들을 위한 부담을 갖는다면 당신은 다섯 달란트를 갖게 될 것이다. 지난 28년 동안 이 사역 아래서 280여 개 이상의 교회들이 세워졌다. 최근에 나는 비난을 받고 비평을 받고 정죄 받았을 때 이 사역이 그릇된 것인지 아닌지를 주님께 물었다. 그때에 주님은 나무를 아는 방법은 그 열매로 아는 것이라고 내게 지적해 주셨다. 그분은 이 사역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건축되었는지를 보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신들을 위해 야심을 갖고 있다면, 이 야심은 그 달란트들을 죽일 것이다.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65, 756-759쪽)

사람들을 돌보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짐

우리는 인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시도했으나 거의 대부분이 효과가 없었다. 최근에 우리는 매주 집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실행을 성도들이 자기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실행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성도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가정을 열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서 더 많이 근심했다. 우리가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면 이 관심 자체가 길을 열어 줄 것이다. 우리는 길이 없다고 말하거나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단허 있던 많은 문조차도 결국에는 열렸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다. 중국에서의 일은 처음에 아주 어려웠다. 한 선교사가 마을을 방문했을 때 아무도 문을 열어 주려고 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심지어 그에게 돌과 진흙을 던지기까지 했다. 그래도 그는 도망가지 않았다. 그는 가만히 서서 주위를 돌아보고는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라고 말했다. 그 형제가 사람들에게 대해 가졌던 사랑과 인내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중국의 모든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 길은 어려웠다. 만약 그가 그런 곳에는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길은 없었을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대한 부담과 관심과 흥미가 있었다면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백 명을 데려올 수 있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복음 집회에 사람을 데려오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이 그들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다. 그러나 결국 가정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방법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족한 것이다. (교회의 건축을 위해 열매를 맺고 목양하는 정상적인 길 메시지 2, 40-41쪽)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급우, 동료—을 재검토하고

그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기도함

활력 그룹의 지체들로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가까이 접촉하고 있는 우리의 친척들에게 복음의 빛을 갚을 필요가 있다(롬 1:14-15). 많은 우리의 친척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님은 당신을 이끌어서 그들을 위해 육 개월 동안 기도하게 하실지도 모른다. 당신은 너무 오래 기도할 필요는 없다. 매일 아침 일어난 후에 당신은, "주여, 저의 어머니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반 년 동안 주님께 부르짖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라.

조지 물러(George Muller)는 그의 자서전에서 그가 수백 명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말했다. 얼마 후에 이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았다. 그는 그의 명단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결국 그 사람은 물러가 죽은 후에 구원받았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들을 관심하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믿어야 한다. 그분은 사람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셨으며 이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의 지방에 있는 수천의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께 의하여 택함 받고 예정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의 택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관심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아무도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도 구원하실 수 없다. 원칙상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 나는 내 누님의 기도로 구원받았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친척들을 위해 그들 모두가 구원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긴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긴 문장을 가지고 길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 이런 식의 기도에는 대부분이 필요 없는 말로 가득하다. 주님은 설명이나 가르침이 없는 참된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친척들을 위해 한 사람씩 단순하고도 직접적인 방식으로 주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책임을 져야 할 우리의 친척들에 대한 복음의 빛을 청산하는 방법이다. 우리의 이웃은 두 번째 범주이며, 우리의 급우들과 동료들은 세 번째 범주로 간주되어야 한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첫 번째 범주) 유대와(두 번째 범주) 사마리아와(세 번째 범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행 1:8). (활력 그룹의 긴급한 필요에 대한 교통 메시지 21, 24-25쪽)

